

맞벌이 가정,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Dual-earner Couples' Work-life Balance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Dept. of Family Welfare, Univ. of Gwangju
Professor Kim, Seonm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세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 |
| II. 선행연구고찰 | V.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적 함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study explored the work-life balance of three dual-earning couples using the household economics approach according to the hermeneutics paradigm. Three families were analysed. The couple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with a non-structural interview guide about their work history and life history, and with a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about their work hours, childcare practice, husband-wife relatio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and daily and weekly schedule. The results revealed the different paths and various strategies to adjust work-life balance among the cases. Strategies were discussed to facilitate changes in labor market policy, childcare policy, working place culture and family's daily life planning.

Key Words :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 해석주의 패러다임(the hermeneutics paradigm), 맞벌이 경로(dual-earning family's path), 가족전략(family strategy)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주저자,교신저자 : 김선미(yupy1005@hanmail.net)

I. 서론

맞벌이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가구 가운데 43.51%를 차지하게 되었다(통계청, 2012). 남성가장·여성주부라는 부부간 성별분업에 기초한 삶도 기혼여성취업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지만, 필요한 변화를 개인이나 가족이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에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제정하였다. 정책이 구체화된 예로서, 맞벌이 증가추세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1)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과 자녀돌봄지원강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조성 및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조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들어선 새 정부도 여성가족부 업무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기간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 출산 90일 이내 30일 남성출산휴가를 의미하는 아빠의 달 도입 및 초등학교 1-3학년자녀를 둔 경우로까지 육아휴직제 확대를 포함함으로써(여성가족부, 2013) 일가정양립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국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차 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맞벌이가족의 특성과 환경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입안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개별 맞벌이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해 낸 생활상의 요구와 그 충족수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정이 형성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경로를 밟아 맞벌이라는 생활양식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전 상황에서 그 맞벌이 가정이 어떤 조정방식을 활용하는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가정은 화폐소득을 얻기 위한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필요로 하며, 그 상대적 중요성은 가족생활주기나 가정이 속한 계층 혹은 거주 지역 등 여러 가지 상황별 가정 요구에 의해 달라진다. 취업조건이 상이한 남녀 근로자의 조합인 맞벌이 가정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보일 것이며, 그들에게 요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가정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삶을 조정하는 방식도 차이 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경로와 조정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부부의 취업여건 변화에 따라 어떤 경로로 맞벌이를 해 나가는가를 보여줄 것이며, 가족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맞벌이가족이 일과 가정의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며 주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때 제약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로부터 우리는 당사자들이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 행위의 능동적인 주체성 혹은 그들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경로, 조정방식 그리고 가족들의 행위성을 파악하면 효과적으로 맞벌이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가정의 생활을 결정하는 최대한 많은 변수를 포착하려면 질적 연구가 유용하다. 그 동안 맞벌이 가정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질적 연구로는 미국에서 12년에 걸쳐 12가정을 관찰하여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을 통찰해 낸 흑실드의 저서(2001)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장기관찰을 통한 연구물이나 부부를 단위로 한 연

구물이 없고, 아직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산출되고 있을 뿐이다.

개별 남성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논문들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주고 있다. 현재의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을 기술하고 그 원인을 내면화된 모성이데올로기, 이상적 근로자상이 주는 일터에서의 어려움, 분담이 어려운 상황들로 파악한 김소영·김선미·이기영의 연구(2011)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업 측의 제도로 시차출퇴근제도 등 탄력근무제도와 육아휴직 등 휴가제도의 적극 운용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과 더불어, 이미 마련된 제도의 시행을 유인하고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행정 지원, 그리고 다각적인 정책 모색을 제언하고, 남녀역할 수정을 통한 새로운 부모 모델과 지역사회 지원을 제언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다루고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여 나타나는 양육방식의 다양성이 지닌 문제로 확대가족망에 의존, 학원돌리기, 이준마에게 맡겨키우기, 어머니의 직장생활 조정, 아동의 조속 중용으로 파악한 김선미의 연구(2005)는 영아안정양육지원체계, 빈곤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영아보육우선지원, 탁아시간탄력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을 제언하는 한 편, 직장적응이나 자기계발 노동강화가 상쇄해 버릴 수 있는 부모권의 실현을 위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부모의 관심 진작도 제언하고 있다. 남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들의 일가정양립경험과 전략을 연구한 채화영은(2012) 가정영역에서 남성의 비주도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기반의 부족, 현대적 남성상의 학습부족, 가부장적 관념과 새로운 남편역할의 충돌, 가장역할의 축소와 가사분담에 대한 압박 등을 남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은 친인척을 활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출산 조절전략을 취했으며, 근무조건을 조절하고 직장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극복

하였다. 이현아·김선미·이승미의 두 개의 연구(2011,2012) 각각 외국계기업과 우리나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남·녀 근로자들을 조사하여, 직장에서의 근무유연성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입증하였다.

상기 연구들이 비록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의한 연구물로서 맞벌이 생활과 관련된 풍부한 요인들을 기술하고 분석했다고 해도 이들 연구 중 부부를 쌍으로 한 연구가 없으며, 결혼이후 맞벌이 삶의 경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일과 가정 양측에 대한 관심과 자원의 이동을 다루거나 그 장기적 과정에서 가족이 채택한 다양한 조정방식과 전략을 연구한 시도가 없으며, 시점도 현재 맞벌이 삶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거나 근무유연성확보와 같은 특정 제도의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로와 조정방식을 포함하여 부부가 맞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를 얻는다면, 맞벌이 가정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후 지금까지 맞벌이가정의 삶의 경로는 어떠한가? 그러한 경로를 통과하면서 맞벌이가정은 어떻게 삶을 조정해왔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사례가정들을 깊이 조사 분석함으로써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맞벌이가정의 생애경로와 조정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먼저, 맞벌이 가정의 삶의 경로는 부부가 각각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할당하는 시간배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김외숙·이기영(2010 ; 258-259)은 ‘동시적 유형’과 ‘순차적

유형'으로 나누고, 어머니 역할과 취업을 번갈아 행하는 순차적 유형을 다시 '만자녀 출산 직후 취업 중단형', 어머니 역할만 수행하는 '전통형', 취업-어머니역할-취업 순을 밟아가는 '취업중단형', 어머니역할만 수행하다가 막내자녀 3세이후 취업하는 '자녀양육 후 취업형', 자녀출산 전 취업 경험이 없다가 자녀출산기간에 취업하는 '자녀출산기 취업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들이 어떻게 취업경력을 추구해왔으며 그 결과 어떤 경로유형이 우세한가에 대하여 부부를 쌍으로 한 직접적인 조사나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재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부터 남성은 비교적 고정적으로 취업을 지속하고 여성이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는 순차적 유형이 우세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하나의 근거로 2009년 전국조사결과를 보면, 남편의 취업기간의 분포가 기혼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세 배 정도 길었다(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 2009).

또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전후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 외(2009) 조사에서는 결혼직전과 직후에 전체의 45.6%정도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경험이 있으며, 출산 전·후로는 23.6%가 퇴장하여 전체 69.2%가 결혼 및 출산에 의해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외(2009)의 조사연구에서도 취업여성의 50%가 결혼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 그런가하면 동일한 연구에서 비취업 중인 부인 중 향후 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고 하며, 비취업여성의 47.5%가 결혼 후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고학력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연구한 엄경애·양성은의 질적 연구결과(2011)를 보면, 경력을 단절한 고학력 여성들은 '직업과 어머니 역할은 양립이 불가하며,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개인적 정체성상실, 모성실현을 통한 육체적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며, 맞벌이삶에 대한 양가

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벌이가족 자녀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여 방어하였다. 대체로 경력을 단절한 기혼여성가운데 재취업은 희망이지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권희경, 2010, 엄경애 외, 2012).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혼여성들이 맞벌이 삶에서 물러나와 양가적 감정을 가진 채 자녀양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애사건의 역동적 분석을 통해 세대별 차이에 주목한 박수미(2002)는 1997년에 15세-65세 사이 여성을 조사하여, 최장 50년간의 취업력에 자료를 확보한 셈인데,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출생코호트나 학력수준에 무관하게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결혼·출산·어린 자녀의 유무 등과 같은 생애사건들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명변인이었다. 다만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에서 생애주기 순서가 영향을 미쳐, 첫 취업 이전에 결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취업 시점을 연기한 반면 첫 취업을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은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린 자녀가 생기면서 둘째출산을 경험한 경우 대부분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전형적인 M자형 형태를 띤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은 주로 여성이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는 순차적 유형이 우세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조사 연구들은 주로 가정에서의 요구를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을 설명했는데, 민현주(2011)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가정의 생애주기사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조건 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성들은 재취업조건으로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확보를 들었고,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자녀를 둔 여성들이 60개월 이상의 장기적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보다 재취업시기가 더 빠

르다는 결과도 보여주어 자녀양육이외에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차별적 여성노동시장이 지속되는 한 가정의 요구와 맞물려 여성의 시장 진입과 퇴장에 의한 일가정양립이 맞벌이 가정의 경로를 결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이유는 생활에 보탬, 생계유지, 사회활동과 자기발전 및 자녀교육비 충당 그리고 노후대책 마련 순이었는데, 고연령 층·저학력 층 부인들에게서 경제적 이유가 우세한 반면, 비 취업이유는 자녀양육이 절대 우세하였다(김승권의,2009).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시장과 가정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로 중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성인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이에스더(2012)는 맞벌이 가정의 경로의 새 가능성도 추가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1-1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세 자녀를 지닌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그 성인 자녀들이 비취업일수록 중년여성의 노동시장(재)진입이 촉진되었음을 입증하여 청년실업으로 인한 부담이 부모세대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로는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체계에 영향을 받는데,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 및 결혼출산 자녀양육 등의 필요로 인한 경력단절은 주로 여성에게서 일어나며, 부부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며 조정하는가에 따라 그 가정의 맞벌이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제 맞벌이 가정이 일가정양립을 위해 어떤 조정방식을 취하는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괄해 보자. ‘전략’은 한 사람의 행동 계획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감정적 준비 모두를 가리킨다(혹실드, 2001;43). 맞벌이삶의 경로를 통해 다양한 조정방식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본다면, 국내연구들은 일가정 균형전략을 단기적으로 역할관리전략 혹은 시간관리전략들로

본 연구가 주종이며, 미국 연구들은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가족단위 관리전략 연구가 많다고 한다(정영금, 2011 : 132-136). 맞벌이 부부는 단기적 시간관리나 역할관리를 위해서는 계획하기, 지원받기, 표준낮추기, 우선순위정하기, 재조직, 집중, 책임제한, 교대하기, 아웃소싱, 번들링, 기술활용, 단순화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직장일과 가정일을 모두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와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배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첫째, 전 생애에 걸쳐 임금노동참여를 줄이거나 재구조화하여 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일 이 가족의 시간을 잠식하는 것을 완충하는 전략(Sandholtz,2002), 둘째, 경력을 추구하되 노동시장에 늦게 참여하는 경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로, 빠르게 발전하는 경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시간제 노동으로 참여하는 경로, 경력단절이 잦은 경로 중 선택하여 역할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Han,1999), 셋째, 일 중심적 전략과 가족 중심적 전략 중 선택하는 것으로 가족의 전략 중 최근 후자가 증가추세이며, 후자에는 자녀양육을 위한 모성접근, 시장접근, 부모접근이 있고 그 중 부모접근이 증가추세(Hertz,1999)라고 한다(정영금,2011:132-135에서 재인용).

부부는 우선은 ‘맞벌이를 계속하면서 일과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가정을 조정한다. 맞벌이 가정의 남성도(채화영, 2012), 여성도(장미경·조혜경·이숙경,2007) 모두 ‘힘들지만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은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지면, 단기적으로는 일 중심 혹은 가정 중심으로 균형이 이동하며, 일 중심 생활을 위해서는 출산을 지연하거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표준을 낮추고, 가정중심 생활을 위해서는 승진을 포기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삭감을 감내하는 등(이현아·김선미·

이승미, 2012; 김소영·김선미·이기영, 2011) 일에서의 표준을 낮추거나 마침내 경력을 단절한다.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부는 부양과 양육 혹은 가사노동을 ‘성별분업과 전문화’로 해결하던 1인소득자모델에서 전환하여 부부간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해결하려 할 것이다. 조희금·서지원(2009)은 맞벌이가정의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시간 보장,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의 부부간 공평성 강화,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이웃과 친지- 활성화, 가사노동사회화를 위한 지원-밀반찬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50쌍의 맞벌이부부를 연구하고 그 가운데 12가정을 12년 동안 참여관찰한 흑실드(2001)의 미국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고나, 국내 남성들의 일가정양립실태를 조사한 송혜림의 연구(2012)를 봐도 남성의 실제 가사분담이 적고, 가사에 대한 주요책임자의식이 결여됨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가사분담이 일가정양립에 중요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보면, 맞벌이 부부 86.3%가 가사노동을 부인이 주로 하고, 하루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비맞벌이 31분 맞벌이 32분이었다.

그 밖에 대안은 자녀양육을 보육시설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유급 도우미나 유급·무급의 친족지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신뢰성있는 안전한 보육시설은 사회적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전 연령의 영유아를 돌볼 신뢰할만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질적 부족과 부모의 근로조건에 맞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가족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자구책을 통해 매꾸어 왔다. 여러 선행연구들은(채화영, 2012; 김소영외, 2011; 김혜경, 2009; 김선미, 2004) 확대가족에 의존한 자녀양육과 비공식부문의 계약에 의해 충원한 양육도우미의 서비스가 주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통계청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미취학자녀를 기르는 일하는 엄마들은 34%가 친정이나 시댁부모의 도움을 빌리고, 33%가 보육시설에 맡기며 23%는 스스로 돌봤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시간제 노동자다. 육아도우미를 쓰는 경우는 4%, 나머지 6%는 형제자매 등에게 맡겼다. 인력조사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실제와 유사하게 할당하여 표집한 이완정(2009)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친인척 등 개인 보육자를 두거나 자신이 근무일정을 조절하면서 직접 자녀를 돌보며, 유아기자녀를 둔 취업모는 전일제로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만나절은 기관에 오후에는 스스로 자녀를 돌본다고 한다. 저출산이 국가정책의 이슈가 되면서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세분화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가 아이돌봄서비스제도가 도입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우선 사용하여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다(이승미·김선미, 2011). 2013년에는 친족돌봄을 아이돌봄서비스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 편, 자녀와 관련된 가정요구에 대해 연구자들은 관심의 범위를 넓혀 맞벌이 부모의 스케줄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의 스케줄 조정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돌보는 방과 후 프로그램 마련(조영희·송혜림, 2009)을 제안하였다.

일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일터의 변화를 촉구하는 연구(이현아·진미정, 2012; 이현아·김선미, 2011; 이현아·김선미·이승미, 2012; 정영금, 2008)와 정책도 생산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부모권의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무유연성 그리고 휴직 휴가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일터의 변화를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수렴시켜 논의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를 실시한 직장일수록 근로자들이 입사 후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한다는 연구도 있다(유계숙, 2010).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여성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가정양립 수단인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기업문화 및 대체인력 활용

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조명하고 있으며(이현아외, 2011), 취업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참여 휴가제를 제안(이현아·진미정, 2012)하고 있다.

결국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가사분담과 같은 가정 내 가용자원뿐 아니라 친족 및 지역사회 보육시설 그리고 직장의 가족친화적 제도들 그리고 국가의 각종 자녀양육지원제도들을 활용하여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며, 부부에게 열려있는 경제활동의 기회들과 조건들을 접합시켜 삶을 유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위한 ‘해석적 관심’에서 시작한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문화기술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심층면접이 가능한 사례가정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맞벌이 가정의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을 기술하고 그 특성을 사례가정의 조건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 조용환, 2002:28)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며 유동적인 맞벌이 가정 모집단의 특성과 분포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소수 사례를 선택하여 깊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0000시에 사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일급 가

정의 사례를 먼저 조사하였다. 한 쌍의 전업주부 가정과 아내가 주 소득자인 두 가정, 남편이 주 소득자인 두 가정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두 가정을 포함하였다. 맞벌이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에 주시하는 이 연구는 일급 가정 가운데 보다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¹⁾. 연구참여가정의 특징은 <표1>과 같다. 선정된 세 가족은 각각 아내가 관리직 남편은 비정규직, 남편이 정규직 아내가 비정규직, 남편이 자영업 아내가 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특성상 사례가정의 내밀한 정보가 필요한 연구이므로, 연구참여자는 모두 익명으로 기호 처리하였으며,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조사지역과 자녀의 성별과 연구참여자의 연령과 같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자는 맞벌이 가정의 삶의 경로와 일가정 양립 조정방식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례가정의 부부를 심층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을 겸하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면접하고자 하였고, 연구참여자와 의논하여 일정을 조정하였다. 사례가정1은 토요일에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모처럼 자녀와 함께 지내는 주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자는 평일에 부부를 각각 직장에서 만나야 했다. 사례가정2는 토요일 오후에 연구참여자가 가정에서 만났다. 토요일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남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먼저 면접했고, 아내는 그 후에 면접하였다. 부부가 서로의 면접에 영향을

1) 나머지 네 가정은 분석을 위한 비교·대조 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정규직이고 아내가 비정규직인 한 가정은 남편이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이틀주간 이틀야간 이틀비번을 순환주기로 특수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아내가 정규직인 다른 한 가정은 남편이 사회적 기업에 근무 중이지만 아직 구직활동 중에 있어서 일정한 생활양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였으며, 자영업을 하는 한 가정은 조사과정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특수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1〉 연구참여자와 사례가정의 특성 및 면담 정보

사례가정1 아내가 주 소득원인 가정 / 아내 a, 남편 b	면담일시와 시간 및 자료분량
<input type="checkbox"/> 가족사항 ; 결혼기간 9년, 자녀 9세, 아내 30대 후반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남편 30대 후반 대학원 졸업, 주거 35평 아파트(2억8천, 그 중 6천만원 대출, 상환 중) <input type="checkbox"/> 일 ; 600명 규모의 대기업 근무 정규직 아내와 민간단체 상담센터 비정규직(계약직) 남편 / 근로시간 ; 아내 40시간 + 주말 휴무, 남편 44시간 + 부정기적 초과근무 + 격주 휴무 / 아내 월소득 350만원, 남편 월소득 270만원	아내; 20120418. 74분. 37쪽. 남편;20121010. 33분. 15쪽. cf. 구조화된 질문지 응답 이메일로 전달받음
사례가정2 남편이 주 소득원인 가정 / 아내 c, 남편 d	면담일시와 시간 및 자료 분량
<input type="checkbox"/> 가족사항 ; 결혼기간8년, 자녀 6세, 아내 30대 중반 4년제 대학교 졸업, 남편 30대 후반 4년제 대학교졸업. 주거31평 아파트(2억5천, 그 중 1억이 대출, 상환 중) <input type="checkbox"/> 일 ; 대기업 협력업체 사무직 정규직 남편과 사무직 비정규직 아내 (110명 직원으로 된 각기 다른 직장) / 근로시간 ; 아내40시간 + 주말 휴무, 남편 64시간 + 토일 순환근무/아내 월소득 100만원, 남편 월소득 200만원	아내; 20120428. 92분. 44쪽. 남편; 20120428. 74분. 28쪽.
사례가정3 자영업자 부부의 가정 / 아내 e, 남편 f	면담일시와 시간 및 자료 분량
<input type="checkbox"/> 가족사항 ; 결혼기간 13년, 자녀 13세, 12세, 9세, 아내 40대초반 4년제 대학교 졸업, 남편 40대 초반 2년제 대학 졸업, 주거 오빠명의로 된 상가윗층에 무상 거주 <input type="checkbox"/> 일 ; 도매상과 소매상 행상을 겸한 자영업, 아내가 도매상관리 및 약간의 소매 담당/ 근로시간 ; 아내 48시간 정도, 남편 60시간 정도, 주 6일 근로/ 월소득 300만원(아내 기여분, 아내평가 30만원 남편평가 100만원)	아내; 20120717. 88분. 36쪽. 남편; 20120602. 85분. 37쪽.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간에 따로 있게 하였으나, 6세 아이는 함께 있었다. 사례가정3의 아내는 가정에서 면접하지 못하고 가게부근에서 면접하였다. 아픈 노모가 있는 좁은 공간에서의 면접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토요일 오전에 가게 바로 옆 조용한 빵가게에서 면접해야했는데, 세 평 남짓 좁은 가게에는 마실 나온 세 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사례가정3의 남편은 아내가 있는 가게와 아픈 노모가 있는 가정이 아닌 조용한 장소에서 심층면접하기를 요청하여 제3의 장소에서 면접하였다.

면접과정을 보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먼저 20여분 정도 연구소개 및 연구자 소개 시간을 가

져 어색한 간격을 좁히고 라포를 형성하였다. 1 단계로 비(非)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으로 결혼 전·후 연구참여자 개인의 노동생애사와 결혼생활 동안 일상적인 가정생활사를 구술하게 하였고, 이어서 가정과 일의 의미,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에 관해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에 답하게 하였다. 2단계로 구조화된 질문 표를 사용하여 결혼기간, 가족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과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직업스트레스 정도와 몰입정도,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자녀의 성별과 연령, 거주형태를 적게 하였다. 또한 가사분담방식과 주요 생계부양자, 일 가정 중요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월평균소득에

대한 평가와 희망 소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생활비지출상황도 조사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면접 전에 연구 참여동의서를 함께 읽고 사인하였으며, 모든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취내용은 전사하였다(자료의 분량은 <표 1>참조). 질적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작성한 현장일지와 심층면접자료의 다각검증과 동료검증, 면접가이드에 의한 구조적 일관성, 두터운 기술(dense description)을 실시하였다. 세 명의 동료가 전사 자료를 읽고 각기 요약하고 증점을 잡아 함께 토의하였으며, 잠정적인 결론에 대한 비평을 교환하여 주관적인 오류를 수정하였다(Lincoln & Guba, 1985:243).

전사 자료로부터 맞벌이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에 대한 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부부의 개인 별 노동생애경로를 파악하고 각각을 같은 시간대로 일치시켜보았으며 하루 일과와 일주일의 일과를 종합하여 이 가정의 전체적 일상생활의 모습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삶의 경로와 관련되는 일터관련 변수나 가정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관념과 행동특성 변수들을 최대한 포착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일종의 가구경제학적 접근(M. Anderson 지음, 김선미·노영주 역, 1994:101)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접근법은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들을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자원을 창출하고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며 그 결과 어떤 권력관계에 놓이는가를 파악하게 해 준다. 그 과정에서 맞벌이가정의 “경제행위의 맥락에서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의식 외부 압력에서 파생하는 구조적 제약을 분리해 내고자 하였다. 가족 내부의 그리고 가족성원과 외부인들 사이의 경제적·비경제적 교환관계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이 구조적 제약의 중심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과의 연관성하에서 맞벌이 가정의 사례를 통해 맞벌이 삶의 경로와 애로사항, 그리고 조정방식을 기술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 세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

세 개의 사례가정으로부터 가족의 생애주기를 통한 맞벌이 삶의 경로와 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조건이 다른 맞벌이 가정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여 맞벌이 가정의 삶의 경로의 특성과 집단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 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 및 단계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1. 사례가정1; 경력을 추구하는 아내(a)와 자녀양육과 가사보조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남편(b)

사례가정1은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 맞벌이 가정으로서, 삼십대 후반 부부가 9년째 함께 살아왔고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경력을 추구하는 아내와 아내의 취업과 사회공헌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은 자녀양육과 가사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남편이 각각의 일세계를 인정하고 가정영역을 조정하면서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 가정, 맞벌이 삶의 경로

사례가정1의 부부는 미혼 시 근무하던 민간단체에서 연애결혼 하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살자(a,b).”는 뜻을 평생 공유하고 있다. 7년간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아내는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같은 단체 내 다른 업무로 두 번 이동하였다. 결혼 후 아내가 3개월간 출산휴가로 일을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맞벌이를 하였다. 아이가 6세 때 엄마는 “민간단체의 취지는 좋으나 저축도 하고 아이도 키우기 위해, 그리고 집도 넓히고 차도 살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기업으로(a)” 일자리를 옮겼다.

그 후 이가정의 아내에게서 일에 변동 가능성은 두 번 있었다. 먼저는 아내가 새로 옮긴 기업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맞물려 일을 그만 둘까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그러나 이 가정은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역아동센터와 엄마의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학원 돌릴까 아니면 어디 케어(care)해주는데 있나 해서 그 때 당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애들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맞벌이 부부 이런 사정 있으면 또 케어를 해 주더군요. 다행히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학교가 끝나면 오후 시간에는 그 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고 있어요(a).”

그리고는 아내가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일터의 스케줄을 조정하였다. 아내가 진학한 이유는 “여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의 직장에서 경력을 온전하게 인정받지도 못했으며(계장으로 가는 것이 옹기 보였으나 대리로 감), 능력을 발휘하기도 힘들어 학위를 취득하여 기업을 창업할 계획(a)”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편은 주 60시간을 일하며 격주 휴무로 근무하는데 평일에도 야근이 잦은데 일 보다는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회식(a,b)”이 주(主)라고 한다. 주 2회 아내가 학교에서 야간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남편의 몫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이 있을 때에는 아이돌보는 일이 우선순위가 밀리고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잦은 회식횟수에 불만이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빠가 당번인데 늦게 올 때가 많아요. 자기가 당번인데, 당번일 때 저는 맨날 지켜서 정확히 가는데, 저희 남편은 아이 혼자 와서 9시까지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a).” 아빠는 “저녁마다 공원에 아이와 함께 가서 산책이나 축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b).”고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인한 약속 불이행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대기업 직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며,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정규직이고 일주일에 이틀간 박사과정을 위한 야간수업을 듣는다. 그 이틀 중 하루는 세 시에 조기 퇴근하여 수업 준비를 하는데, 부족한 근무시간은 모아서 남편이 쉬는 토요일에 대체 근무한다. 아내의 야간수업은 10시에 끝난다.

자녀는 평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간식도 먹고 오지만, 방학에는 교사의 근무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오전 시간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 엄마가 ‘아이의 주 양육 책임자(a,b)’이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등하교 알리미기기를 부착해 주어 엄마의 ‘일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나 친구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부모부재로 신속히 대응해주지 못하는 점(a,b)’을 걱정하며 그 해결책으로 ‘엄마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과 잦은 상담을 하는 편’이다. 아이를 돌보는 대부분의 몫을 하는 엄마는 “지치고 늦은 귀가로 자녀 방과 후 시간에 예습·복습을 봐주지 못하고 있다. 매일 1시간씩 월 1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아이의 예습·복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a)”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학원 돌리기로 강화된 사교육을 시키는 것(a)”만은 회피하고 싶어 한다. 이 가정의 표준은 ‘아이 혼자 있지 않게 하면서 부부 모두 직업에서 충실하기 그리고 향후 경력

을 위한 자기계발'이다. 이 가정의 긴장감은 이 표준을 두고 형성되는데 대개는 아이가 그리고 아내가 희생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쉬는 토·일요일을 활용하여 여행을 한다.

향후, 아내가 학업을 수료하고 나면 남편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 남편은 두 개의 직업을 가질 계획을, 아내는 기업을 창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아이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자녀가 문화를 습득할까봐 염려를 벗어나게 하고, 외할머니가 식당일을 접고 동거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매워주고 있는 틈새를 매워줄 것이다. 첫째 아이를 키우던 힘든 경험과 실제로 분담이 어려운 남편의 입장, 대체인력문제로 육아휴직이 곤란한 아내의 사정 등이 합해져서 둘째 아이출산은 유보되었으나 “큰 아이가 외로워 보여(a,b)” 둘째를 낳을 예정이다. 현재 620만 원정도의 월 소득을 가진 이 가정은 중상층으로 자평하면서 최소생활비는 450만원이면 되므로 향후 저축하여 집을 더 늘려갈 생각이다.

2)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
맞벌이가정의 조정방식

사례가정1은 보다 높은 소득을 통해 중산층가족을 기획하는 부부로서 한 번도 맞벌이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해 왔다. 먼저 부부가 일영역의 안정화를 위하여 일자리를 이동하였는데, 가계수입증대를 위하여 아내는 이전의 경력을 근거로 직장을 옮겼으며 앞으로는 경영학 박사학위취득 후 기업을 창업할 생각이다. 남편도 일자리를 옮겼으나 같은 단체내 부서이동과 같은 것이며 비자발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일을 찾기 위해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부에게 학위취득은 일자리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전일제 맞벌이를 지속하는 경로에서 이 가정은 필연적으로 공적 사적 자녀양육지원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출산휴가 후 친조부가 9

개월, 아이가 돌이 지나자 민간베이비시터가 1년, 그 후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1년간 아이를 양육하였다. 아이가 4세가 되자 부모가 속한 민간단체의 스포츠센터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중산층 부부의 개별적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의 유지(조주은,2012)'를 위해 가사와 자녀양육시간 총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해갔다.

셋째, 자녀양육의 주요 책임자인 어머니의 직장과 가깝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이용가능한 지역아동센터 가까이로 이 가정이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 선택이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무렵 경력중단을 고려했던 어머니로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발견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고, 거주지이동은 놀라운 해결책이 되었다. 그 결과 문화산업을 하는 직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이에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놀토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하는 추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이 가족은 경제공동체로서 부부간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녀돌봄을 분담하기 위한 스케줄 재조정에 잘 드러난다. 일자리이동을 위한 직업에의 몰두와 순차적 진학에 합의하고, 아이는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돌본다는 원칙을 위해 아내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남편의 직장 스케줄을 함께 조정하였다. 출근이 더 늦은 남편은 아침에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고, 아내는 학교에 가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저녁시간을 모두 아이 돌보는데 할애하기로 하였다. 남편은 당번인 이틀저녁을 제외하고는 평소 야간 회식을 허용 받는다. 아내의 주말 대체근무는 토요일격주휴무인 남편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남편이 쉬는 날에 실행한다. 아내 직장의 근무유연성이 부부가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절대시간이 부족하고 상당기간 남편의 가사분담에 좌절한 아내는 가사기기를 자동화-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하

여 피로감을 줄이고 있다. 최소생활비보다 수입이 더 많다고 느끼는 이 가정은 가사노동을 자본 집약적인 소비재로 해결하고 있다. 기혼여성취업의 역사나 소비재발달이 앞선 미국에서 ‘내구재를 활용한 가계생산기술의 변화는 시간을 덜 소비하면서 동일한 산출을 얻게 하였고, 이러한 시간절약내구재의 소비는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D.E.Eastwood저, 김용희 역, 1987:108).’고 하는데, 이 가정의 사례는 상대적 고소득인 아내가 취업으로 벌어들인 추가 소득을 가사노동 시간절약을 위한 기기구매에 사용하여 역할갈등을 완화하는 조정방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2. 사례가정2 ; 노동시장에 드나드는 아내(c)와 주요 소득원인 남편(d)

사례가정2는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으로서, 결혼지속 연수가 8년이며, 남편은 삼십대 후반, 아내는 삼십대 중반이다. 첫째 아이는 6세이며 조사시점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를 보면, 생계를 위해 맞벌이가 필수적인 가정이지만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영역에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취업한 부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이 최종적인 조정방식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 가정, 맞벌이 삶의 경로

이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는 남편의 일 지속과 아내의 노동시장에 입장과 퇴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편은 고향을 떠나 인근 광역시로 옮겨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업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공단 사무직 일을 하던 아내는 동거시점에 일을 그만 두지만 전업주부 삶에 대한 회의로 6개월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 희망하던 직업은 결혼을 이유로 ‘퇴짜’맞고, ‘누구나 환영’하

는 상담직에 취업하여 3년 반 일을 하다가 임신하였으며, 다시 상담직 업무스트레스를 피해 퇴직하였다. 출산 후 1년간 취업을 중단하였다가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였다. “혼자 벌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c).” 그러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일 년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금 이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시 취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경력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기 전 중간단계로 아내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 하루 12시간씩 일 해야 하는 아내의 근무조건이 ‘9시에 나가서 5시에 돌아가는 것을 환영하는 어린이집(c)’에서의 육아와 불일치하여 아이를 친정으로 보내 3년간 키웠다. 아내는 월 120만원을 벌며 50만원을 아이에게 보내야했지만 작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일이 좋은 아내는 그래도 ‘괜찮았다’. 부부는 매주, 가끔은 격주로 두 시간 걸려 아이를 보러 다녔지만 아이가 크면서 부모를 찾게 되자 집으로 데려와 함께 키우기로 걱정했다. 그러나 부부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남겨두고 아이와 함께 왔고 결국 혼자 살기 힘들어하는 친정아버지에게 1년 만에 귀향해야 했다. 불가피하게 아이의 엄마는 ‘그 동안 매일 12시간씩 그리고 토요일에도 10시간씩 4년간 일한 점을 들어, 이제부터는 하루 8시간씩 일하겠다(c)고 회사에 ‘어렵사리’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고 수용되었다. 그 대신 아내는 월수입 50만원 감축과 주임승진 후 계장승진 포기를 수용했다.

현재, 부부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제조업 사무직에서 각각 일한다. 아내는 비정규직으로 직원은 110명이며,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혼인 여직원들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직장이며 15시간까지도 일을 하는 곳이다. 남편의 직장도 직원이 110명인데 아내와 달리 정규직이고 하루 12시간 일하며 주 64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남편은 과장 2년차로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한 단계

(a,b)’라고 한다. 남편은 술자리가 많아 아내가 “주5일제 술자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무외 시간도 일터관련 시간으로 할애한다. 부부가 공히, “남편은 지금이 회사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할 때 이면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때(c,d)”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삶에서 현 단계를 ‘황금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정년보장 안 되는 사무직’의 미래를 반영한다. 불확실한 직장은 일에 더 전념하게 하고 일가정양립에서 일 중심이 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남편의 일상생활은 장시간근로, 술자리,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학공부를 위해 방송통신대학 주 1회 자율학습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쉬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쉬는 주말에도 직장동료들의 경조사 참여와 취미클럽활동에 주로 나가며 자율학습참여나 가족공유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언제 셋이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c)”. 남편의 직장문화는 ‘자꾸 멎쳐야 생산성이 올라간다(c)’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 활동은 임원 참여로 인해 반강제성을 띤다고 한다.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 8시에 데려다 주고 8시 반에 출근하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나서 다시 찾는다. 그 동안 아이는 낮잠 없이 지내다가 집에 와서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잠이 들기 쉽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엄마가 기민하게 아이를 씻기고 식사준비를 할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더 빈번하다고 한다. 아내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최초요, 무리하게(c)’ 근무시간을 조정할 셈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만이라도 보육시설 이외 시간에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아예 일을 그만 두고 방과 후에 보살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둘째 자녀를 임신했으나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내고 사직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아내는 최대한 늦게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겠다고 하지만 임신사실이 가시화되는 7개월쯤 사퇴하겠다고 한다. 아

내 이러한 불가피한 경력 중단은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소득이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을 가져와 아내는 남편의 ‘황금기’와 달리 이시기를 ‘혼동의 시기’라고 한다. “육아전담이 되고 둘째 임신하고 뭐 어떻게 살겠지만 그게 빨리 끝나고 뭔가 딱 또 정리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애들은 나를 안 찾고 나는 내 일 할 수 있는(c)”. 뿐만 아니라 적은 소득을 벌더라도 일을 가지는 것이 아내에게는 정체성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 자신을 상실하는 시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다시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 지금 아내는 “평일에는 거의 99% 저 혼자 일 하고 살림하고 애기 보고, 솔직히 저는 그냥 애기랑 둘이 보내요(c).”라고 한다. 아내는 주말에는 아이를 외출시키고 싶지만 누적된 피로감에 아이는 비디옌을 보거나 게임을 하게하고 자신은 수면을 하기가 쉽다고 하며 집 정리도 못 한다고 한다.

향후, 사례가정2는 남편 나이 사십대 초반에서 사십대 후반의 조기 퇴직을 우려하고 있고(c,d), 이러한 우려는 아내의 경력중단으로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둘째 아이가 영아기를 지나면 육아와 돈벌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보육교사로 나설 생각인데 그 이유는 “내가 애들은 안 좋아 하지만, 나이도 차고 눈치는 보이겠지만, 내 아이를 데리고 육아병행이 가능하기 때문(c)”이라고 한다. 아내는 기혼여성용 일자리는 많지만 육아병행 근무여건이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아내는 ‘익숙하기도 하고 선호하므로’ 제조업체에 재취업하고 싶지만, 나이차별에 걸릴 듯하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부는 아이에게 특정한 직업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을 원하며 그 일을 찾는 것을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믿지만, 지금과 같은 맞벌이 생활에서는 그럴만한 시간여유가 없다고 아쉬워한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볼 때, ‘사교’가 중요하고 또 예체능을 잘하

는 것이 사교의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예체능교육을 아이에게 해 주고 싶다. 이 가정은 4인 가족 월 소득이 맞벌이 하면 320만원, 혼자 벌면 200만원인데도, ‘지구화담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보내려면 저축을 해야 한다(c,d).”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녀 교육과 관련한 소비표준을 높이며 막연한 불안감에서 부부가 맞벌이로 나서게 되는 측면도 있다. 부부는 현재 가정의 위치를 중하층이라고 평가하고, 최소 생활비가 월300만원이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월500만원은 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불일치는 아내로 하여금 언젠가 재취업하게 할 요소가 된다. 이 부부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편이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고, 아내가 육아병행 직장에 재취업하여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우스푸어로 대출금을 안은채 남편은 조기퇴직하고 부인은 재취업하지 못 하는 것이다.

2)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
맞벌이가정의 조정방식

사례가정2는 생계를 위해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가정이지만, 부부의 개별적 취업과 상하이동에 적극적인 사례가정1과 달리 열악한 아내의 직장을 자주 중단하면서 일과 가정을 장기적으로 양립해보려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례가정2의 조정방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다른 기혼여성들처럼 취업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자녀양육시기에 아내가 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아내는 취업표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재취업 및 경력단절을 반복하였는데, 하향 이동은 수시 중단을 용이하게 하였다. ‘제조업체 구직 중 상담직 수용, 임신으로 인한 상담직 퇴직, 12시간이상 일하는 제조업체의 사무직 수용’이 아내의 하향 이동 경로이며, 초등학교 자녀와

영아를 데리고 이제 다시 저임금의 보육교사직을 수용할 예정이다. 가정단위 일가정양립을 위해, 일터에서 정점에 이른 남편의 일 지속과 승진이 가능하도록 이 가정은 성별분업전략을 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아이 출산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되 소득은 감소할 것을 예상한 아내는 경력중단 이전에 근무시간감소를 단행했는데, 친족자원과 보육시설을 합한 자녀양육을 최후까지 활용해보다가, 이런 대안마저 활용이 어려울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점진적 조정은 사례가정2의 경제적 필요와 아내의 취업이 아내의 정체성 유지에 주는 의미가 자녀가 어릴 때 우세함을 의미하고, 자녀가 자라 가정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질 때 일가정양립을 위한 최후의 조정이 아내의 일 영역에서의 희생임을 의미한다.

둘째,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인 사례가정 2는 양육을 위임하되 어린자녀를 원거리에서 외조모가 양육하는 것, 그리고 동거하면서 양육하는 방식까지 수용하였다. 이런 친족에 의존은 사례가정 1에서처럼 부모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출근과 장시간 근무에 맞는 보육시설이나 시간연장보육의 부재 시, ‘아내의 비취업 육아전담’을 희망하는 남편과 일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아내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가정의 경제적 필요의 복합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에 의존은 조부모부부의 별거를 초래하였고, 그 별거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때 불완전하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 하여금 맞벌이를 지속하게 하는데 잠정적인 의의만 가지는 조정방식이다. 셋째, 장기적 재무관리는 소득의 변동이 큰 이 가정에 필수적인 조정방식으로 관찰된다. 경력중단과 재취업을 반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하는 사례가정2는 맞벌이를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시기에 대출과 저축과 상환과 소비와 지출을 잘 조정하는 소득

의 기간 간 선택(inter temporal choice)에 주의를 기울인다. 사례가정2는 ‘기숙사에 살면서 소득 전부를 저축한 근면하고 검소한 남편과 알뜰한 성향을 가진 아내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을 힘입어 집을 장만하였으나, 빚을 상환해야 하며 둘째 아이출산으로 지출증가가 예상되지만 아내가 일을 그만 두면 월소득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소비는 감축해야 한다. 이 부부의 경제적 연합은 공격적인 소득확대에서 보다, 방어적인 소비감축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검약은 한계가 있고, 아내는 반드시 재취업해야 한다. “둘째를 출산한 후에 2-3년 졸라매고 살다가 다시 돈 벌이 하러 나가야 한다. 집사느라 진 빚도 갚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c)”

3. 사례가정3; 가족중사자인 아내(e)와 아내의 상사, 자영업자 남편(f)

사례가정3은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으로서 결혼지속 연수가 13년이며, 남편과 아내는 모두 사십대 초반이다. 이 가정은 13세 12세 9세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 가정의 ‘맞벌이 삶의 경로’를 보면, 남편은 업종을 바꿔 계속 자영업을 해왔고, 결혼 전 취업경력이 없는 아내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계속하면서 가업을 보조하는 가족중사자로서의 일을 간헐적으로 해 온 것이 특징이다. 부부 중 누구도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남성의 가장의식이 강한 이 가정의 조정방식은 생계비확보를 위한 남편의 일의 강화를 둘러싸고 채택되었다.

1)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 가정, 맞벌이 삶의 경로

사례가정3의 아내는 대학생 때, 낮에 건설회사 경리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학교를 다녔지만, 경리일을 경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남편은 가구점과 노점상을 거쳐 지금은 굴비 도·소매업

을 함께 하는 자영업으로 정착하였는데, 아내는 가구점 일과 지금의 굴비 도·소매업에 함께 하고 있으며 가구점에서의 자영업보조를 최초의 경력으로 여긴다. 남편은 인쇄영업직을 하다가 같은 종교단체에서 미취업 여성인 아내와 결혼하였다. 남편은 인쇄영업이 사양길임을 진단하고 6개월 정도 더 좋은 직업을 탐색하고자 했으나, 생계를 위해 한 달 만에 가구점 중간 도매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내는 첫 자녀 출산 후, 결혼 2년차에 가구점에 집이 딸린 곳에서 가족중사자로서 3년 정도 맞벌이를 시작하였는데, 가구점에서 일을 시작한 이듬해에 둘째아이를 출산하였다.

영세업자 대출을 위한 창업신용보증재단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아내 오빠에게 1,000만원을 무상으로 얻어 가게를 열었으나 가구점은 역설적이게도 매출증가가 외상증가로 이어졌고 이어 대출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3년간 되풀이되었고 가게 2개를 정리할 때 7-8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생각에 빚은 “시골부모님 집 다 팔아도 못 갚을 돈(f)”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위장이혼/파산신청을 생각했으나 ‘신앙양심상’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남편은 평생 빚을 갚겠다고 결심하고 노점상을 시작하여 총 9년 정도 계속하였다. 신발노점을 시작하여 빚을 갚기 시작, ‘개·폐점에 장시간이 걸리고 악천후에 영향 받는 신발노점’을 접고, 전국을 돌며 차장사로 선글라스를 판매하였으나 계절을 타자, 화물차에 천막을 친 ‘호로차’로 쥐포와 오징어를 팔아 계속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한다. 남편은 그 동안 일상적으로 찜질방과 여인숙에서 숙박하였는데, 그러한 숙소에서는 숙면권을 침해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원거리 여행이 불필요한 굴비로 취급상품을 변경하고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업종의 변경은 남편이 만나는 여러 행사들의 행동관찰과 대화에서 우연한 계기를 맞아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며, 남편은 자신의 수익계산과 “아닌 것은 빨리 접는(f)” 사업수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굴비장사는 ‘몇 명을 모아서 함께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저가에 물품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일수록 팀으로 하면 좋아요. 저가매입이 가능하고 경쟁심도 생기도 함께 놀이도 가고..... 영광굴비, 서민들이 먹게 해 준 것이 차장사예요(f).” 굴비장사는 수익이 좋아 “진짜 이런 장사도 있구나(f).” 싶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가게를 얻어 아내로 하여금 가게를 지키게 했다. 남편은 “정직하게 파는 것이 상책(f)”이라며 명함을 주고 상품을 판다고 한다.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두 차례 가구점과 굴비가게에서 5년 정도 맞벌이에 동참한 셈이다.

아내는 남편의 자영업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과 세 아이와 노모부양을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바깥 취업을 포기했다. “머리로 는 일이 더 중요하지만 몸으로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e).” 남편은 “전형적 한국남자(e)”로 처음부터 자녀는 전적으로 아내 책임이었으며 아내로 하여금 다른 직장을 못 구하게 하고 집에 있게 하거나 동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는 ‘우울하게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다는 ‘취업해서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일은 나의 스타일과도 안 맞는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보수가 적더라도 낫지 않을까? 애 아 빠랑 꾸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f).” 고 학력인 아내에게 자영업을 보조하는 가족종사자 지위는 직업지위로서의 자부심을 주지 못하지만, 자녀양육이라는 가정의 요구가 커서 그 절충안으로서 현재의 ‘자영업보조·가족종사자’의 지위에 머물게 되었다.

남편은 “애 엄마가 여러 번 일을 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싶냐? 그

러면 내가 뒷바라지 해 줄 테니까. 대학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라. 어디 가서 경리보고 그러면 나 쪽 팔려서 당신 못 보낸다(f).”라며 아내취업을 만류한 이유를 들고 있다. 아내의 취업의 꿈은 미완의 꿈이 되었다. 연년생 두 아이와 ADHD를 앓는 두 아이를 포함하여 세 아이를 키워온 아내는 육아와 돈벌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방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현재, 이 가정은 “빛도 없고 어느 정도 가진 것도 있는 상태이다(f).” 지금 이 가정은 3,000만 원 정도 현금과 보험이 있다고 하며, 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탈(脫)수급할 계획이다. 아내는 주당 48시간이상, 남편은 60시간이상을 노동하며 주말 휴무는 부부 모두 없다. 부부는 8시가 지나면 출근하고, 아내는 5시경에 행상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교대하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저녁식사를 해 주고 남편은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그 후 남편은 소매상들을 지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월수입은 300만 원 정도이며 증가선상에 있다. 아내는 자신이 월 30만 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면 150만원 월급을 주는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아내가 매월 100만원의 벌어들이는 셈이라고 평가한다.

사례가정3의 자녀를 보면,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 첫째와 셋째는 ADHD인데, 세 아이 모두 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그리고 일요일 2시간을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지낸다²⁾.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할머니의 잔소리 혹은 지나친 허용(e)”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사례가정3의 아내는 아이돌보미집에 간식을 사 두고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막내아이는 아이돌보미집 근처 태권도 학원에 가서 ‘과잉에너지’를 소비하고

2) 2013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35쪽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 항목에서 돌봄 장소는 이용자가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이 합의하고 서비스관리기관에 고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온다고 한다. 아이돌보미집에 가지 않는 날에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지내며, 토요일에는 엄마를 따라 가게에 나오기도 하는데, 엄마는 아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과 토요일에 가게에 와서 놀다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아이돌보미집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사회 놀토 프로그램도 ‘소진한’엄마가 챙겨줘야 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가정의 아이들의 이용률은 낮다고 한다.

굴비가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아빠는 양육을 엄마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지만 최근에는 학부모회의에도 나갔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도 하려고 한다. “(학부모회의에)아빠는 저 혼자였어요. 저녁 7시 반에 했지요.....거기에서 배운 것은 ‘내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학부모회 다녀오고는 심하게 혼 안내고 칭찬도 하게 된다.....2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도 잡고 놀아주려고 애 쓴다(f).”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일요일 온종일 교회에 머물기 때문에 “집에서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e).”라며 불만에 차 있으나, 남편이 ‘실패할만한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소한 불만은 참아버린다(e).”고 한다. 남편에게 자녀양육참여를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아내는 사례가정 1,2의 아내들처럼 부부간 규칙을 바꾸지 못하고 혼자서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향후, 이 가정은 이제 “참혹한 상황은 탈피(e,f).”했고, 남편은 지금의 가게 목이 좋아서 소매증가를 기대하며, 옆 가게까지 매입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내의 근무시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아내도 “남편이 차장사를 50세, 60세까지 할 수 없으니, 도매로 완전히 체제를 전환해야한다(e).”고 생각한다. 아내는 아직도 “월 150만 원 정도 버는 나만의 일(e)”을 하고 싶지만, 세 자녀를 돌봐야하는 점과 남편의 자영업보조 기대 및 가정 밖 취업에 대한 부정적 태

도를 감안한다면 아내의 바깥 취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남편이 가사분담만 잘 해 준다면 저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일반 직장 나갔으면 좋겠어요. 150벌어 40정도 쓰고 110은 집에 들여놓는(e).” 아내는 ‘자기 일’이 있어야 자존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여자도 결혼과 출산에 무관하게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다. “매일 똑같잖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남편의 보조, 자녀의 보조역할로만 살아간다는 느낌이에요(e).” 자영업을 계속 보조하는 한 아내의 부정적 직업정체성은 향후에도 잠재할 것이며, 아내가 자존감을 찾는 것은 이 가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가정은 월소득 3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아내는 “일부 떼어서 저축도 하고 대학교육을 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월 450만원의 수입은 있어야 한다(e).”고 한다. 이로부터 사례가정3은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득향상을 위해 부부가 도매로 전환한 자영업을 함께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2)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 맞벌이 가정의 조정방식

최저생계비 확보도 어려웠던 자영업가계로서 사례가정3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소득확보를 위한 일 영역에 우선권을 두고 남편의 ‘일의 변화 및 강화’, 아내의 ‘일과 가정, 드나들기’방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아내와 남편은 철저히 성별 분업하여, 돈벌이는 남편이 양육은 아내가 전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분업은 부부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가장의식과 세 아이의 양육이라는 조건 그리고 아내의 소극적 수용의 산물이다. 이 가정은 생존과 생활을 위한 화폐소득의 확보를 위해 남편은 일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강화하였다. 새로운 사업아이템 탐색과 비수익계산, 최대한의 근무시간, 모험의 연속이 남편 노동생애사의 특징이

다. 재무관리는 아내의 역할이 되었다. 가구점을 파산한 후 남편은 자신의 용돈만 남기고 아내에게 재무관리를 일임하였고 아내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내가 일과 가정의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하되 사례가정2의 아내가 일과 가정을 분리하면서 두 영역을 왕복했다면, 사례가정3의 아내는 일종의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중복시켰다. ‘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의 기본 틀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보조역할을 담당하여 이 가정의 일 영역의 수지를 맞추었다. 부부가 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포괄하는 근무유연성은 다른 맞벌이 가정에 비해 훨씬 높고, 그에 따라 육아 병행이 가능하였다. 아내와 남편은 일 가정 양립의 효율적 방식으로 ‘교대’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개인적 취업에 근거한 직업정체성의 확보에 실패하고 일과 가정이 분리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소진을 경험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이 가정은 자녀양육을 위해 친족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였다. 친조모는 아이들이어릴 때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활용하고는 틈새를 매우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지원해왔다. 또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활용은 아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 주고 자영업 동참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야말로 진짜 정말 고마운 노릇이에요. 인생 구원자(e)” “친척이나 부모님이 안 된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정말 고맙죠(f).” 사례가정3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예는 다자녀 가정의 돈벌이 필요성과 자녀 돌봄 필요성의 중첩된 요구를 국가 제도가 충족시켜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아내는 자영업보조자로서 정체성 혼돈시기를 일 년 정도 보냈으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아이의 치료를 위한 기관왕래와 놀이·학

습에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보다도 효과적(e)”이라면서,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는 양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례가정3은 일로부터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못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의료비와 보육시설이용료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용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수급권자로 등록하고 또 탈퇴하는데 시간의 격차가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가정의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V.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세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맞벌이 삶의 경로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정해왔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세 가정이 밟아 온 맞벌이 삶의 경로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과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 및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으로 구별되었다. 사례가정들은 일영역과 가정영역에서 공통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자리 확보와 소득안정성에서 차이가 났으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 가정이 채택한 조정방식을 보면, 맞벌이 삶의 경로와 필연적으로 관련된 조정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인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맞벌이 가정 공통의 문제와 내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먼저, 각기 다른 세 가지 경로를 보인 맞벌이 부부의 조정방식을 보면,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은 일자리안정과 소득확보를 위해 일자리 상향이동과 진학이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였는데 아내는 성공적으로 상향이동 하였다. 경력을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강고한 경제적 공동체로서 중산층가족을 기획’(조주은,2012)하는 이 가족은 친족과 공적·사적 양육지원수단을 다양하게 순차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부부간에 아이를 돌보기 위한 스케줄 조정하였다. 아내 직장에서의 토요 대체근무와 같은 유연성은 상당히 도움이 되어 어느 측면에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입사 후 출산율을 높였다는 연구결과(유계숙, 2011)를 지지한다.

이 가정이 지역아동센터를 발견한 것은 ‘관리직에 있는 고학력취업여성들이 한 번 째 경력중단을 고민하는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 무렵의 고비’(이현아 외, 2011)를 넘기게 하고 경력을 지속하게 해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으로부터 두 가지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갈 때 부모가 느끼기에 ‘예습 복습의 효과적 지원 결여와 방학 중 돌봄 자원의 부족 그리고 저소득층문화의 오염’이라는 낙인의 세 가지 기피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이용자가 인식하므로 그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공적 대안이 부족한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개선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정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용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재가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맞벌이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자녀양육수단에 대하여 이용자가정을 직접 겨냥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찾은 회식참여로 자녀양육분담의 의무를 저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그러한 우리나라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남편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부부간 협상만으로는 젠더규칙이 변경될 수 없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한계로 인정하고, 새로

운 가정생활문화, 특히 남성의 돌봄노동참여의 특정한 계기를 만드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재인(2010)은 대기업남성들이 가족중심정체성으로 이동하는 예가 적은 이유가 남성노동자들의 개인적 경험이 돌봄노동을 하나의 도덕적 책무로 여길만한 계기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상징적·형식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201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봄나눔 프로그램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의 제공 및 그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 시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효하며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 자영업을 하는 사례가 정 3의 아버지가 외지 영업을 그만 두고 가족 옆으로 와서, 학부모회의에 참여하여 변화를 경험한 것도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은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내가 일반적인 기혼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과 출산을 통과하면서 점차 일자리를 하향 이동하였고, 근무시간감소 및 일자리 중단과 재취업을 반복하였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해 내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전형적인 현실(여성부외, 2009;박수미, 2002)과 노동시장의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민현주, 2011)는 증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가정 내에서 남편의 경제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커져 경제적 부담은 남편에게 집중되고,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의 남편에 비해 일 영역이 훨씬 강화되었다. 아내는 부수적 수입원으로 자리잡아갔으며 아이는 점점 더 엄마의 몫이 되었다. 후자의 남편이 가계소비규준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이동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전자의 남편은 가계의 생존을 위해 직업유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모인과 스위트(Phyllis Moen and Stephen Sweet, 2003:19)는 주4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과잉노

동으로 보았고, 자녀양육에서 면제된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분포가 많다고 하나(이재인, 2012; 130에서 재인용),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자녀양육에 있는 남편들이 모두 과잉노동을 하고 있다. 아내의 직업 안정성과 남편의 정년보장은 자녀양육시기에 남편의 과잉근로를 완화하고 적절한 시간을 가정에 할애할 수 있게 해 주어 부인의 과잉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적 시사점은 기혼여성노동시장이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법적 강제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하고, 기혼여성들의 실제적 일자리인 감정노동을 하는 일터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악영향이 차단되도록 보호 기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해 제조업체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 과잉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의 가정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대개의 맞벌이 가정이 그렇듯이(채화영, 2012; 김소영외, 2011; 김혜경, 2009; 김선미, 2005) 친족지원을 받았으나 이 가정에서는 특히 아내의 경력중단에 저항하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 가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친족에 의존한 극단적 자녀양육방식까지 채택하면서 공적 보육시설들과 양육공조체제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친족과 근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친족지원은 보편적인 자녀양육수단이 되기가 어렵다. 주거지 근처 친족 부재, 자녀양육기에 있는 기혼근로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직장문화, 장시간근무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보육시설은 필연적으로 어머니의 경력중단을 초래한다. 따라서 친족의 적절한 지원과 주간 여덟 시간 근무하는 기혼근로자부모를 모델로 하는 보육시설은 기혼여성의 경력지속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완

정(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모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고자 보육서비스에서의 유연성을 통해 총체적 유연성을 높인다고 한다. 지금의 어린이집은 취업여성의 상황에 맞추기보다는 “전업주부가정의 자녀를 선호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숫자가 적고, 남성과 미혼여성근로자가 지배적인 일터나 지역에서는, ‘부인 취업 수시 중단형’ 가정에서 보듯이 이른 출근 늦은 퇴근 시간에 맞는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두어 추수요를 계산하고 수요자입장에서 맡기고 찾는 방식을 갖춘 보육시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남녀근로자에 대해 보육시설의 개폐 시간에 부모의 출퇴근을 배려해주는 직장문화가 동시에 중요한 이유는, 보육시설에서의 탁아담당자도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기 때문이며, 자녀와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모와 자녀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이야말로 일가정양립은 확실한 성별분업에 기반을 두고 남편의 노동 강화하기, 아내의 일과 가정 드나들기, 친족지원 및 사회적 지원활용하기를 통하여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이 가정에서 남편의 낙관적인 태도와 근면과 모험은 개인적인 자원이 일 영역에서의 성공에 기여하는 범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가정의 사례는 고학력 여성이 자영업보조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록 일과 가정의 역할을 중첩하여 수행하지만 직업으로서의 만족감과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정체성도 얻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3.5%에 해당하는데(김승권외, 2010:419), 이들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어떻게 직업적 자부심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혼재로 인한 소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일가정양립정책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 먼저,

이 가정의 아내가 원하는 취업은 취업경험이 없어 구체적 대안을 알지 못하고 시도할 엄두를 못내는 다른 취업경험이 없는 다른 기혼여성들(김선미, 2004)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루어지기 힘든 꿈’으로서 개별적 취업 정체성을 희망하는 고학력의 두 여성(c,e)은, 취업 또는 취업지속의 어려운 현실과의 괴리로부터 느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선행연구(엄경애 외, 2011)에서 드러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 혹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취업교육과 접근이 쉬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립된 가족중사자로서의 소진을 막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례가정은 아이돌보미서비스 활용으로 지대한 도움을 얻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자영업 무급중사자의 일가정분리를 돕고 소진을 해소하게 하려면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시점에서 일 년이 지난 후 2013년에는 지침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지 않은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아이돌보미서비스활용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하여 연간 720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다만 이런 신속한 개선사항을 맞벌이가정이 유효하게 활용하려면, 이요자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으로부터 자영업을 하는 가정이 사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빈곤선이하로 떨어져도 해체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입지체는 수급이 절실한 극한상황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격이 되면 신속하게 진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진입지체의 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물린 예의 ‘창업신용보증재단’같은 타 부처의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탈퇴 여건이 되어도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의 종료시점까지 불가피하게 지연할 수 밖에 없는 데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를 고려할 때, 섬세하고 합법적인 과도기로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맞벌이 가정의 세 가지 삶의 경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각 가정이 채택한 조정방식과 그 것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자녀 양육기에 삶의 경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또 조정을 불러오는 것 가운데, 가족에게서 시작된 원인도 있지만 가족의 통제밖에 있는 원인도 있다. 자녀의 추가 출산(사례가정1,2)이나 자영업의 개진과 확장(사례가정3)은 가족이 주도한 원인이지만, 자녀의 질병(사례가정3)이나 육아 휴직을 할 수 없는 즉 직장 내 근무 유연성의 결여(사례가정2)나, 저항할 수 없는 높은 소비표준(사례가정1,2,3)과 같은 원인은 가족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후자에 대해서 가족의 조정은 수동적 적응의 성격을 가지며, 그 때문에 가족의 능동적 행위성(agency)은 제약된다. 이럴 때 맞벌이 가정의 조정은 적극적인 적응을 의미하는 ‘균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영역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보이는 ‘접합(articulation)에 따른 것’(김혜경, 2009)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가족전략이란 ‘의사결정의 엄격한 규정보다는 덜 분명하나, 가족행동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 영향을 끼치는 원칙, 가족이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로 행동하는 내재적 원칙이다(한경혜, 1990:104). 이 연구에서 말한 조정방식은 일종의 가족전략이다. 그런데 ‘다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사례3)나 ‘취업지속을 허용하지 않는 가부장적 일터’(사례2), ‘자녀양육책임을 여성의 책임으로 수용하는 남편들’(사례1,2,3), ‘장시간 야간근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일자리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녀양육지원제도’는 가족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전략만을 취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제약 혹은 문화적인 제약으로서 보다 깊

속한 뿌리를 가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제약의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세 가정의 사례로부터, ‘부부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 ‘부인이 수시로 취업을 중단하는 유형’, ‘부인이 가업을 보조하는 유형’의 맞벌이 삶의 경로와 장·단기 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부부를 모두 면담하여 맞벌이 가정의 생애사 자료를 얻어, 맞벌이 가정이 처하는 어려움을 여러 시기에 걸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공통점과 다양성을 추출해 논의하였으며, 맞벌이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정책수단들에 대한 함의도 제시하였는데 의의를 가진다. 단, 이 연구는 깊이 있는 고찰을 위해 소수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후속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단위로 하는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 문화기술지로부터 추가적 유형을 발견하여, 다양한 층위의 맞벌이 가정에 맞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1) 권희경(2010).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의 재취업 욕구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87-98.
- 2) 김소영·김선미·이기영(2011).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93-116.
- 3)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6), 105-116.
- 4) 김선미(2004). 30·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과 정체성유지를 위한 대응양식;문화기술

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5)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 김외숙·이기영(2010). 가족자원관리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7) 김혜경(2009). 강이수 역(2009). 일-가족 접합의 역사와 친족관계의 변화, 일-가족·젠더 :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129-171.
- 8) 나탈리 소콜로프(1989). 이효재 역(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9) 민현주(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53-72.
- 10)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11)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12) 알리 러셀 흑실드(1989). 백영미 역(200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야기, 돈잘 버는 여자 밥 작하는 여자. 서울 : 아침이슬
- 13) 엄경애·양성은(2012).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21-40.
- 14) 여성가족부(2013). 아이돌보미사업지원안내.
- 15) 여성부 외(2009).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6) 유계숙(2010).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89-96.
- 17) 이승미·김선미(2011).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4), 61-75.
- 18) 이에스더(2012). 성인자녀가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경제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19)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20) 이재인(2010).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한국 대기업 남성들의 경험과 인식:S재벌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19-134.
- 21) 이현아·김선미(2011). 근로자들의 근무유연성에 대한 요구 분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들의 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63-84.
- 22)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2). 외국계기업사례 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73-187.
- 23) 이현아·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부부의 지각: 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45-160.
- 24) 이현아·진미정(2012). 취업부모의 학교참여 경험 및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50(6), 119-130.
- 25) 임윤옥(2012). 일가정 양립문제, SSK 맞벌이 가정의 일과 삶. *전문가회의 자료집*.
- 26) 장미경·조혜경·이숙경(2007). 맞벌이 여성의 주부 역할에 관한 체험 연구. *질적연구학회*, 8(1), 39-54.
- 27)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28) 정영금(2011). 가족친화사회를 위한 일과 가정의 균형. 서울 : 도서출판 인스.
- 29) 조영희·송혜림(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보육 및 학교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정책 : 맞벌이 가정으로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65-83.
- 30) 조용환(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 : 교육과학사.
- 31) 조주은(2012). 기획된 가족. 경기 : 서해문집.
- 32) 조희금·서지원(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33) 채화영(2012).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34)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103-120.
- 35) 통계청(2012). 2012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
- 36) D.B.Eastwood(1987). 김용희 역(1990). *소비자경제학*. 서울 : 비봉출판사.
- 37) Lincoln, Y. S. &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A.
- 38) M. Anderson(1980). 1500-1914 서구가족사의 세 가지 접근방법. 경기 : 한울 아카데미.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22일